

7월 차 생산·수출 ↑ 내수 ↓ 경제도발 일본차 판매 '뚝'

친환경차 내수 23% 증가...수출도 102% 급증

7월 국내 자동차 업체들의 생산·수출 실적이 크게 늘었지만 내수 판매는 줄었다. 특히 일본산 브랜드 국내 시장 판매 감소는 내수 부진에도 영향을 미쳤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7월 국내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생산과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17.4%, 11.6% 증가한 반면 내수 판매는 2.4% 감소했다.

생산의 경우 올해 출시된 신차와 부분변경모델이 인기를 끌면서 전년 동월 대비 17.4% 증가한 35만9554대를 기록했다. 이 중가솔은 올해 최대 기록이다. 특히 SUV가 23.8% 급증하면서 생산량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

수출은 북미와 유럽(EU)을 중심으로

로 SUV와 친환경차의 지속적인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전년 동월 대비 11.6% 증가한 21만5927대를 기록했다. 이 중가솔 역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록이다.

금액 기준으로는 전년 동월 대비 21.6% 증가한 38억2000만달러이다. 이를 지역별로 나눠보면 북미는 17억6000만달러(23.2%), EU는 7억3900만달러(37.8%), 아시아는 1억7600만달러(5.0%) 등이다.

반면 내수 판매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4% 감소한 15만1091대에 그쳤다. 이 중에 국산차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0% 감소한 12만9468대, 수입차는 4.8% 감소한 2만1623대에 그쳤다.

특히 일본 브랜드(도요타·렉서

스·혼다·닛산·인피니티)는 지난 6월 3946대가 판매됐으나 7월에는 전월대비 32.2% 감소한 2674대에 그쳤다. 전년 동월대비로 따져도 17.2% 감소율을 나타냈다.

전기차·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부문의 경우 내수는 전년 동월 대비 230% 증가한 1만2421대를 판매했다. 주요 모델별로 하이브리드차는 그랜저가 2289대, 니로 1836대, 신형 K7가 1564대 순으로 많았고 전기차는 코나 1528대, 수소차는 넥쏘가 352대 판매를 기록했다.

친환경차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02.3% 급증하면서 역대 월단위 최대치인 2만5063대를 판매했다.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니로, 아이오닉, 코나, 넥쏘 등 전 차종이 고른 판매 실적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



“아기 안전을 위해서라면” 1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임신, 출산, 육아 박람회 ‘제36회 베베 베이비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육아 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日 대체할 中 하늘길 ‘먹구름’...항공사들 ‘당혹’

중국 항공당국이 오는 10월까지 약 두 달간 중국으로 취항하는 전 노선에 대해 신규 취항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중국 민항국은 전날 오후 국내 항공사들에 공문을 보내 이달 9일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중국 전 노선에 대해 운항신청을 받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중국 당국의 운항 신청 거부 이유는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항공편 증가에 따른 수요 및 안전관리 차원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 당국의 갑작스런 조치에 항공업계는 당혹스러운 입장이다. 특히 이미 취항 준비를 마치고 일부 항공권 판매를 마친 대한항공, 티웨이항공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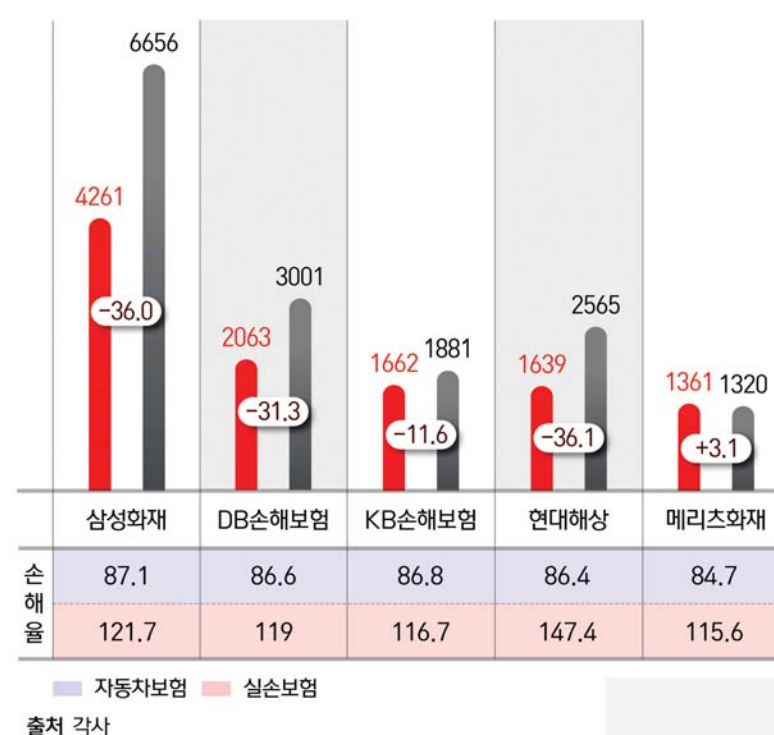
의 경우 환불이나 노선 변경 등 재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근 거세지고 있는 일본 여행 보이콧 움직임에 항공사들은 일본 노선 공급을 대폭 축소하고 있다. 이에 항공사들은 일본을 대체할 수 있는 노선으로 5월 확보한 운수권을 통해 신규 취항을 준비해 왔지만 중국의 갑작스러운 조치로 운항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따라 남은 3, 4분기 사업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5대 손보사 중 메리츠만 웃었다...車·실손 보험료 오르나

주요 손해보험사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 비교

● 19년 상반기 ● 18년 상반기 ○ 증감률 단위: 억원, %



5대 손해보험사 중 메리츠화재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사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10~30% 떨어지며 부진을 면치 못했다. 정책성 보험인 자동차보험과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악화된 영향이다. 메리츠화재의 나 홀로 선방은 자동차보험 비중이 작기 때문이기도 하다. 올해 상반기 실적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손보사들이 보험료 인상에 나설 것인 전망도 제기된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 '말형'인 삼성화재는 올해 상반기(1~6월) 순이익 4261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손보업계 2위인 DB손해보험 상반기 순이익의 2배를 넘는 수준이지만 지난해 상반기(6656억원)보다는 36.0% 감소했다. 지난해 상반기 삼성전자를 주축을 매각해 얻은 이익을 빼고 계산하더라도 22.3% 낮았다.

DB손보와 KB손해보험의 상반기 순이익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31.3%, 11.6% 줄었다. 현대해상의 경우도 36.1% 감소했다. 손보사 중 순이익이 늘어난 곳은 메리츠화재가 유일하다. 메리츠화재 상반기 순이익은 1361억원으로 전년보다 3.1% 증가했다.

◇ 자동차·실손보험 손해율 치솟았지만 선제 대응 못한 손보사

손보업계는 실적 악화의 원인이 자동차·실손보험에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상반기 5대 손보사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84.7~87.1%로 잠정 집계됐다. 손해율은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중 지급하는 보험금 비중을 면치 못했다. 정책성 보험인 자동차보험과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악화된 영향이다. 메리츠화재의 나 홀로 선방은 자동차보험 비중이 작기 때문이기도 하다. 올해 상반기 실적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손보사들이 보험료 인상에 나설 것인 전망도 제기된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더욱 심각하다. 5대 손보사 실손보험 손해율은 115.6~147.4%다. 받은 보험료보다 내준 보험금이 많은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제인 케어'로 기존 비급여 진료료가 급여로 전환돼 가격 통제를 받자 그와 비급여 진료료가 비싼 값에 과잉으로 이뤄지거나 새로운 비급여 진료 항목이 만들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과잉진료비 논란이 일었던 백내장 치료가 대표 사례다.

기존에 건강보험이나 실손보험으로 보장하지 않던 추나요법 등 한방 진료료가 급여로 편입되며 실손보험으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야 하는 것도 손해율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 총의료비는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보통 진료비의 70%)와 나머지 본인부담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비급여로 나뉜다. 실손보험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장한다.

손해율이 치솟아 실적이 내려앉

고 있는 데도 손보사가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한 이유는 두 보험의 특성상 보험료 인상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고 소비자불가피수 산정에 포함돼 금융당국으로부터 간접적인 가격 통제를 받는다. 실손보험 역시 2018년 기준 가입자가 3422만건으로 국민 대다수가 가입해 가격 조정이 쉽지 않다. 손보사로서는 자동차·실손보험에서 난 실적 구멍을 다른 상품 이익으로 메우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덜 팔기' 전략 구사 메리츠...손보사 보험료 추가 인상 할까?

결국 손보사가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자동차·실손보험을 덜 팔거나, 다른 수익성 높은 상품과 함께 파는 것 정도다. 실제 메리츠화재는 다른 손보사가 자동차보험 가격경쟁을 벌일 때 잠정하지 않았다. 메리츠화재는 자동차보험 '덜 팔기' 전략을 일찍이 사용해 시장점유율이 4% 이하이고, 손해율 역시 5개 손보사 중 가장 양호하다. 이 전략은 5%대에 달하는 높은 운용수익률, 채권매각, 장기(인)보험 집중 등과 더불어 올해 상반기 순이익 증가에 핵심 역할을 했다.

다만 다른 손보사가 같은 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 대형사로서의 책임과 이미지, 정부 눈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메리츠를 제외한 5대 손보사는 금융지주에 속해 있거나 재벌 계열이어서 정책성 보험을 등한시할 수 없다"며 "메리츠는 이 같은 요소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덜 팔기'가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실적 부진을 겪은 손보사들이 자동차·실손보험 보험료 인상에 나설지도 관심사행이다. 손보사가 연내 자동차보험 보험료 인상에 나선다면 올해에만 3번째다.

손보업계 1위인 삼성화재는 지난 9월 2019년 상반기 경영실적 투자설명회(IR)에서 "보험료 인상은 소비자 부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량대출 확대, 손해율 관리 강화, 사업비 효율화 등으로 손익 악화를 방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IR이 끝난 후 (뉴스1)과의 통화에서 "보험료 3차 인상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우선 자구 노력으로 손익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미"라며 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뉴스1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 ▶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 ▶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 ▶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 ▶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